



Original Article

Difference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Kho, Hyo Jung¹⁾ · Lee, Eun Ju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2) Student,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의 차이*

고 효 정¹⁾ · 이 은 주²⁾

1)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examine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sex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1,118 college students. The tool for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was the 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KGRII) of Lee, Kim and Koh(2002) and the Sexual Attitude Scale of Koh, Kim and Lee(2005).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zed statistics, χ^2 test, Lamda, t-test, ANOVA, Sheffe and Pearson correlation with the SPSS WIN 12.0 program. **Result:** For male students, undifferentiated role identity type, 36.5%, was the most common but for female students, an androgynous role identity type, 39.3%, was most common. The sexual attitude score according to gender role identity type was 2.9 for the undifferentiated type as the highest score. O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highest sexual attitude score was the undifferentiated type.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or male student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field of study

and height and for female students weight. Sexu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height and weight.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s are different between the sexes. This study result contributes to providing basic data for sex education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Gender identity, Gender role, Sex, Students

서 론

인간의 성은 신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느냐 하는 통합적 차원이며 구체적인 성행위와 정체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다(Citron & Kartman, 1982). 성적 정체감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가지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에

* 본 연구는 2004년도 동산의료원 교수제안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투고일: 2007. 8. 7 1차심사완료일: 2007. 8. 16 2차심사완료일: 2007. 8. 29 최종심사완료일: 2007. 9. 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ho, Hyo Jung(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ongsan-dong, Jung-gu, Daegu 700-712, Korea

C.P.: 82-11-9002-1753 Fax: 82-53-252-6614 E-mail: hjk585@kmu.ac.kr

대한 지각에서 나온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감각으로 정의된다(Haffner, 1994).

성역할정체감은 성역할 자아개념에 가까운 개념으로 자신이 얼마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Kagan, 1964). 성역할정체감은 유아기에 발달하는 성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지각이 증대되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 된다(Yoo, 1994). 청소년기는 건전한 이성관의 확립,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성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Yang & Jung, 2002). 또한 성역할정체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역할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현대에서는 맞벌이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성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Park, 2000).

성태도는 성과 신체적 구조에 대한 느낌, 다양한 성활동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을 말하며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와 상호 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므로(Ko, 2001), 사회구조적인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은 주요한 영향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성의 자유화와 여권 신장, 새로운 피임법의 개발, 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 등은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고 성의 개방화를 촉진시켰다(Ko, 2001). 특히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행위 중 ‘결혼 전 유산’에 대해 4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거나 ‘키스나 진한 애무’, ‘성교’ 등이 증가(Moon, 1998; Oh, 2003)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다양한 성문화와 성 윤리와 관련된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성태도가 변화되었다(Lee et al., 1997; Oh & Park, 2006).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개념을 갖기 전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성문화에 노출되고, 퇴폐적인 성 정보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Kim, 2000).

그러므로, 청소년의 시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적 특징을 생각해 보는데 이때에 형성된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는 대학생들의 평생을 거쳐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문화 형성에도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적령기를 앞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태도와 그에 따른 성정체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그들의 성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태도에 관한 연구는 성과 관련된 태도 즉 개방적 성행위의 증가를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주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가 연구되었

다(Jo, Kim, & Kim, 2001; Kim, 2000; Ko, 2001; Woo & Ka, 2005). 또한 연구대상도 초·중·고 학생위주로 하여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었으므로, 대학생들의 성태도에 대해 연구하여 성별로 비교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도 성역할정체감 도구를 개발한 연구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을 파악한 연구(Kim & Nam, 2005; Park, Kim, & Park, 1998)와 그 밖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혼전성교, 자위행위, 임신, 유산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 조사한 연구(Oh, 2003)뿐이었으며, 남녀 각각의 성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적었으므로 이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성에 대한 갈등과 부정적인 성태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그리고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을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대학생의 성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 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은 그 사회에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Kagan, 1964), 본 연구에서는 Lee, Kim과 Koh(2002)가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도구(KGRII: 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로 측정한 점수로 양성형(Androgynous type), 남성형(Masculine type), 여성형(Feminine type), 미분화형(Undifferentiated type)으로 구분된다.

2) 성태도

성과 관련된 제반현상에 대한 의식 및 사고, 그리고 가치관 등과 행동에 관한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Woo & Ka, 2005), 본 연구에서는 Koh, Kim과 Lee(2005)가 개발한 한국인 성태도 검사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여, 측정된 점수의 총합에 대한 평균이 2.5점 이상이면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별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 5월 10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 대구시내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1,14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자가 직접 훈련시킨 연구보조자 2명이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잘못 표기된 것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1,11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397명, 여자 72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여학생이 더 많은 이유는 이들은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으로서 강좌의 특성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 약 2:1 비율로 남녀를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성역할정체감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Lee 등(2002)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도구(KGRII: 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양성성 이론을 기초로 한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이며, 남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여성성 하위척도 15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 15문항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scale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양성성 문항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성의 특성과 여성성의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는 남성성, 여성성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문항이다. 남성성 문항은 활동성, 적극성 등과 같이 자기 주

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격특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통념적으로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이다. 여성성 문항은 우리 문화권에서 통념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성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의 경우는 대상자가 사회규범이라는 준거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남성형과 여성형 특성을 초월한 바람직한 측면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02).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중앙치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각 중앙치보다 둘 다 높은 경우를 양성성 유형, 남성성만 높은 경우를 남성성 유형, 여성성만 높은 경우를 여성성 유형, 둘 다 중앙치보다 낮은 경우를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이었다.

2) 성태도 측정도구

Koh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성태도 검사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성태도 도구들을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번역상의 오류문제나 외국문화에 기초한 도구이므로 우리의 관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본 도구는 모두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도구로 측정된 점수의 평균이 2.5이상이면 대상자의 성태도가 개방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50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성별간에 동질성 검정을 위해 χ^2 test, Lamda, t-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및 성별에 따른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 t-test 및 ANOVA를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별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에 따른 전공영역, 동거형태, 성장지역, 가족형태, 종교, 경제상태, 연령, 키, 체중,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97명, 여학생 721명이었으며, 전공영역은 자연계열이 35.9%, 인문계열이 30.5%였다. 동거형태는 ‘가족’이 76.4%, 성장지역은 ‘대도시’가 69.4%,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1.7%, 종교는 무교가 41.8%, 경제상태는

‘중’이 79.2%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7세, 평균키는 166.5cm, 평균체중은 58.7kg이었고, 대상자가 느끼는 건강상태의 점수는 평균 2.5점이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영역, 종교, 경제상태, 연령, 키, 체중 및 건강상태를 제외하고는 동거형태, 성장지역, 가족형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전공에서 인문계열과 공과계열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종교에서는 불교와 무교가, 경제상태에서는 하가 상, 중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연령에서 평균 1.7세, 키에서 13.4cm, 체중에서는 16.5kg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나 건강상태에서는 오히려 여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18)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n=1,118) frequency(%)	Male(n=397) f(%)	Female(n=721) f(%)	χ^2 , Lamda or t(p)
Major field of study	Human science	341(30.5)	185(46.7)	155(21.5)	500.01(.00)
	Engineering & science	149(13.4)	146(36.9)	3(.4)	
	Nature science	401(35.9)	16(4.0)	385(53.5)	
	Arts & physical science	226(20.2)	49(12.4)	177(24.6)	
Cohabitant	Family	854(76.4)	293(73.8)	561(77.9)	7.45(.05)
	Relatives	23(2.1)	10(2.5)	12(1.7)	
	Friends	8(.7)	6(1.5)	2(.3)	
	Others	233(20.8)	88(22.2)	145(20.1)	
Growth area	Big city	776(69.4)	276(69.5)	499(69.4)	2.39(.49)
	Medium size city	224(20.1)	73(18.4)	151(21.0)	
	Farm village	112(10.1)	46(11.6)	66(9.2)	
	Others	5(.4)	2(.5)	3(.4)	
Family type	Nuclear family	1026(91.7)	362(91.2)	663(92.1)	.27(.64)
	Extended family	92(8.3)	35(8.8)	57(7.9)	
Religion	Protestant	308(27.6)	83(20.9)	224(31.2)	38.27(.00)
	Catholic	149(13.4)	33(8.3)	116(16.2)	
	Buddhist	188(16.9)	88(22.2)	100(13.9)	
	None	467(41.8)	192(48.3)	275(38.3)	
	Others	4(.3)	1(.3)	3(.4)	
Economic status	Good	37(3.3)	17(4.3)	19(2.6)	39.65(.00)
	Moderate	885(79.2)	274(69.0)	611(84.9)	
	Poor	196(17.5)	106(26.7)	90(12.5)	
		M±SD	M±SD	M±SD	
Age(years)		20.7± 2.93	21.8±2.94	20.1± 2.65	9.92(.00)
Height(cm)		166.5± 8.06	175.2±5.41	161.8± 4.62	43.43(.00)
Weight(kg)		58.7±15.69	69.3±9.23	52.8±15.43	19.50(.00)
Health status		2.5± .79	2.4± .85	2.5± .75	-3.32(.00)

<Table 2> Distribution of gender role identify types according to sex

(N=1,118)

Type	Total f(%)	Male(n=397) f(%)	Female(n=721) f(%)	χ^2 (p)
Undifferentiated	333(29.7)	145(36.6)	188(26.2)	47.18(.00)
Masculine	214(19.2)	55(13.8)	159(22.0)	
Feminine	181(16.2)	91(22.9)	90(12.5)	
Androgynous	390(34.9)	106(26.7)	284(39.3)	

학생 보다 0.1점이 더 낮았다.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비교

전체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성성 유형의 비율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미분화 유형이 29.7%, 남성성 유형이 19.2%, 여성성 유형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은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chi^2=47.18$, $p<.00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36.6%, 양성성 유형이 2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성 유형이 13.8%로 가장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이 39.3%, 미분화 유형이 26.2%의 순으로 높았으며, 여성성 유형이 12.5%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비교

전체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성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미분화 유형이 평균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여성성 유형과 남성성 유형이 평균 2.8점, 양성성 유형이 평균 2.7점의 순이었다($F=9.17$, $p=.00$). 또한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성태도의 차이는 미분화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우 평균 3.0점, 여학생의 경우 평균 2.8점($t=5.89$, $p=.00$), 남성성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우 평균 2.8점, 여학생의 경우 평균 2.7점($t=.71$, $p=.02$), 여성성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우 평균 2.9점, 여학생의 경우 평균 2.6점이었으며($t=5.30$, $p=.00$), 양성성 유형에서 남학생의 경우 평균 2.8점, 여학생의 경우 평균 2.7점($t=.03$, $p=.00$)으로 4가지 모든 유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차이 비교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검증에 서 전공영역($F=7.46$, $p=.00$), 종교($F=1.39$, $p=.03$), 경제상태

<Table 3>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sex and gender role identify type (N=1,118)

Type	Total M±SD	Male(n=397) M±SD	Female(n=721) M±SD	t(p)
Undifferentiated	2.9±.40	3.0±.38	2.8±.38	5.89(.00)
Masculine	2.8±.34	2.8±.35	2.7±.33	.71(.02)
Feminine	2.8±.38	2.9±.37	2.6±.33	5.30(.00)
Androgynous	2.7±.35	2.8±.39	2.7±.33	.03(.00)
Total	2.8±.37	2.9±.38	2.7±.34	9.71(.00)

<Table 4>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8)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n=1,118)			Male(n=397)			Female(n=721)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Major field of study	Human science	2.8 ±.38*	7.46	.00	2.9 ±.39*	2.69	.00	2.7 ±.34	.89	.63
	Engineering & science	2.9 ±.36			2.9 ±.36			3.0 ±.28		
	Nature science	2.7 ±.35			2.9 ±.38			2.7 ±.35		
	Arts & physical science	2.7 ±.38*			2.9 ±.41*			2.7 ±.35		
Cohabitant	Family	2.8 ±.36	.92	.64	2.8 ±.27	1.08	.34	2.6 ±.23	.98	.49
	Relatives	2.7 ±.26			2.9 ±.28			2.4 ±.65		
	Friends	2.8 ±.42			2.9 ±.39			2.7 ±.39		
	Others	2.7 ±.40			2.9 ±.38			2.7 ±.33		
Growth area	Big city	2.8 ±.37	1.01	.45	2.8 ±.41	.93	.60	2.7 ±.36	1.18	.24
	Medium size city	2.8 ±.38			2.9 ±.34			2.7 ±.39		
	Farm village	2.8 ±.38			2.5 ±.22			2.9 ±.32		
	Others	2.7 ±.32			2.9 ±.38			2.7 ±.35		
Family type	Nuclear family	2.8 ±.37	-1.51	.21	2.9 ±.38	-.96	.33	2.7 ±.34	-1.01	.31
	Extended family	2.6 ±.33			3.0 ±.35			2.7 ±.30		
Religion	Protestant	2.8 ±.35*	1.39	.03	2.9 ±.32	.94	.58	2.7 ±.34	1.17	.24
	Catholic	2.7 ±.35			2.9 ±.35			2.7 ±.36		
	Buddhist	2.8 ±.38			2.9 ±.40			2.7 ±.35		
	None	2.8 ±.39			3.2 ±.00			2.9 ±.44		
	Others	3.0 ±.38*			2.9 ±.38			2.7 ±.34		

<Table 4>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118)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n=1,118)			Male(n=397)			Female(n=721)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Economic status	Good	2.8 ±.52*	1.54	.01	2.9 ±.35	1.29	.11	2.7 ±.33	.92	.59
	Moderate	2.8 ±.36			2.9 ±.42			2.7 ±.38		
	Poor	2.8 ±.41*			2.9 ±.40			2.6 ±.39		
Health status	Very good	2.8 ±.41	1.35	.05	2.9 ±.36	1.35	.07	2.7 ±.34	1.04	.41
	Good	2.8 ±.37			2.9 ±.39			2.7 ±.35		
	Moderate	2.8 ±.37			2.9 ±.42			2.7 ±.29		
	Poor	2.7 ±.35			2.6 ±.49			2.8 ±.41		
	Very poor	2.7 ±.44			3.0 ±.39			2.7 ±.34		
	Others	2.8 ±.36			3.3 ±.00			2.7 ±.34		
Height(cm)	≤159	2.7 ±.34*	9.18	.00	2.8 ±.37*	1.52	.02	2.7 ±.34	1.18	.23
	160-164	2.7 ±.34			2.9 ±.48			2.7 ±.35		
	165-169	2.7 ±.38			2.9 ±.37			2.6 ±.38		
	≥170	2.9 ±.38*			2.6 ±.36*			2.7 ±.36		
Weight(kg)	≤49	2.7 ±.36*	8.46	.00	2.8 ±.41	.95	.58	2.7 ±.33*	1.70	.01
	50-54	2.7 ±.33			3.0 ±.41			2.7 ±.34		
	55-59	2.8 ±.38			2.9 ±.37			2.7 ±.38*		
	≥60	2.9 ±.38*								

* Scheffe test

(F=1.54, p= .01), 건강상태(F=1.35, p= .05), 키(F=9.18, p= .00) 및 체중(F=8.46, p= .00)에서 성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남학생의 경우 전공영역(F=2.69, p= .00)과 키(F=1.52, p= .02)에서 성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체중(F=1.70, p= .01)에서만 성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사 결과 남학생의 경우 전공영역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키에서는 159cm미만과 170cm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몸무게에서 49kg미만과 55kg이상 59kg미만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5.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태도의 관계

전체 대상자의 연령(r= .18, p= .00), 키(r= .20, p= .00) 및 체중(r= .13, p= .00)과 성태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5>.

남학생의 경우 성태도와 연령(r= .17, p= .00), 몸무게(r= .49, p= .00)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연령, 체중, 키 및 건강상태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논 의

현대에 들어오면서 문화의 개방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성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Kim & Nam, 2005; Park et al., 1998).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

<Table 5> Correlation among sexual attitud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1,118)

	Characteristics	Sexual attitude	Age	Height	Weight
Total	Age	.18*			
	Height	.20**	.19**		
	Weight	.13**	.16**	.51**	
	Health status	-.04	-.05	-.02	-.03
Male	Age	.17*			
	Height	-.02	-.07		
	Weight	.49**	.01	.51**	
	Health status	-.06	-.02	-.02	-.44
Female	Age	.06			
	Height	-.18	-.46		
	Weight	.01	.12*	.12*	
	Health status	.01	-.01	.01	.62

* p< .05 ** p< .01

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를 초점으로 본 연구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 양성성 유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 미분화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양성성 유형이, 여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높게 나타났던 기존의 연구(Park & Park, 1999; Park, 2000; Park et al., 1998)와 다르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여성성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Kim(1995)의 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석한 Oh와 Park(2006)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양성성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이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 변화로 인해 남녀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라고 사료된다.

대학생의 성태도에서는 성태도 점수가 평균 2.8점으로 중간점수인 2.5점보다 .3점이 더 높았다.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평균은 미분화 유형 2.9점, 여성성 유형 2.8점, 남성성 유형 2.8점, 그리고 양성성 유형 2.7점으로 4가지 유형 모두 중간점수인 2.5점 보다 높아 모두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남녀 모두에서 성태도가 모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성태도를 조사한 Ko(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태도는 38.7%가 개방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양성성 유형이 개방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고정관념의 관련 유형을 비교한 Kim과 Nam(2005)의 연구에서 양성성 유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비해 가장 약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의 양성성 유형이 약한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한 연구(Bem, 1981; Jo, 1996; Kelly & Worrell, 1997; Lee, 1990)에서도 양성성 유형의 집단이 가장 약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양성성 유형은 후기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적 특징과 비교해서 올바른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 형성에 중요한 특징이 되리라 사료되며 이에 청소년들에게 양성성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방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공영역, 종교, 경제상태, 키 및 체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추후에 반

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성태도 연구 또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남학생의 경우 전공영역 및 키에서 성태도에 차이를 보였고 여대생의 경우 체중에서만 성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별 분석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생의 성태도는 연령, 키, 체중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 태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성별, 연령을 제시한 Choi(1999), Kim(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으며, 체중이나 키와 같은 신체적인 조건 등도 성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서 연령이 성태도와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소년기라는 시기적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특징을 적용하여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또는 개방적인 성태도에 대한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 개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태도 도구는 결혼을 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써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50으로 낮은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혼이고 청소년후기에 속한 대학생으로서 성인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측정 장소가 가정이 아닌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하여 측정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도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시도한 연구인데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 보다 더 많아 대상자의 수를 조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연구에서 표본추출법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의 동질성이 종교, 경제상태, 전공영역 등 몇 변수에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이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각 개인은 남성성 유형과 여성성 유형을 모두 소유해야만 상황 변화에 맞는 융통적인 행동으로 적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성역할정체감은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초월한 심리적 양성성 유형을 획득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Bem, 1974; Kerry & Worrell, 1977),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가장 많아 성역할정체감에 혼란을 겪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양성성 유형이 많았으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대적인 상황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양성

성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성고정관념에 따른 전통적인 성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므로(Bem, 1975), 성개념이나 성역할 등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양성성 유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반적인 특성인 전공영역, 종교, 경제상태, 건강상태, 키 및 체중 등을 고려한 성교육프로그램과 중재방안 개발은 앞으로 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이나 성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성에 대한 갈등과 부정적인 성태도를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성별비교는 남학생은 미분화유형이 가장 많고, 여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 4가지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남학생 보다 우위에 있어 비하여 남학생은 미분화 유형이 여학생보다 많아 성역할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성태도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값이 낮아 이 도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ol*, 42, 155-162.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Personal Soc Psychol*, 31, 634-643.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 Rev*, 88, 354-364.
 Citron, H., & Kartman, L. L. (1982). Preserving sexual

identity in the institutionalized aged through activities. *Activity Adaptation & Aging*, 3(1), 55-63.
 Choi, H. S. (1999). *The study of gender-role stereotyping, gender role identity and self-esteem of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Haffner, D. (1994). Sexuality and aging: The family physician's role as educator. *Geriatrics*, 49(9), 26.
 Jo, I. S. (1996). *Gender role identity, sex attitude and self ident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Jo, J. Y., Kim, Y. H., & Kim, Y. H. (2001). Sex attitude and sex behavior of teenagers. *Life Res*, 4(31), 31-44.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J Counsel Clin Psychol*, 45, 1101-1115.
 Kelly, J. A., & Worrell, J.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 and androgyny: *A clin Rrev*, 46, 46-56.
 Kim, D. I. (1999). *Sex stereotype of Korean*. Seoul: Munemsa.
 Kim, M. K. (1995).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and friend's associat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im, M. Y., & Nam, S. H. (2005). The study on the gender role identity and sex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6(1), 126-131.
 Kim, Y. H. (2000). A study of the effects on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role identity and attitude by the audio-visual program for sexual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30(6), 1556-1567.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h, H. J., Kim, M. Y., & Lee, B. S. (2005). Development of Korean sex attitude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Lee, B. S., Kim, M. A., & Koh, H. J. (2002). Development of Korea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 *J Korean Acad Nurs*, 32(3), 373-383.
 Lee, I. R. (1990). *The gender stereotyping in occupations and sex role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Lee, Y. W., Park, M. R., Song, M. S., Yoo, J. H., Choi, S. N., Han, Y. M., & Hwang, Y. J. (1997).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7(1), 28-35.
 Moon, I. O. (1998). Attitude, the assessment of arousal-sexuality: Attitude, the assessment of arousal-sexual permissiveness relationship, and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Soc Health Stat*, 23(1), 149-163.
 Oh, H. K. (2003).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for education on sex of Korea female students in college. *Korea Soc Health Edu*, 22(2), 167-179.
 Oh, Y. H., & Park, Y. S. (2006). A study on sex role identity and family group characteristic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J Women Health Nurs*, 12(1), 22-28.
 Park, E. O., & Park, Y. S. (1999). Sex role identity and health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 *Korean J Women*

- Health Nurs*, 5(3), 362-378.
- Park, Y. J. (200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x streotype and self-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Park, Y. S., Kim, Y. I., & Park, Y. H. (1998). Sex-role identity and stereotypes of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J Korean Soc Sch Health*, 11(1), 51-62.
- Yang, S. O., & Jung, G. H. (2002). Percepton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 J Women Health Nurs*, 8(2), 289-300.
- Yoo, G. H. (1994). Sex-role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J Korean Acad Child Nurs*, 15(1), 127-144.
- Woo, N. S., & Ka, Y. H. (2005). A study on the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Psycho*, 10(2), 113-133.